



3년 새 전남 인구소멸 위험 더 커졌다

인구과소지역 비율 31.1%p...화순 40.29% 최고
도내 지자체 5곳 중 1곳 3년 연속 인구 감소
의료·교통 등 삶의 질 직결 인프라도 최하위권

최근 3년 사이 전남지역 인구 감소·소멸 위험이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교통 등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기본 인프라가 전국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국도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10일 발간한 '2021년 국토조사' 보고서와 '국토조사 국토지리 데이터베이스(DB)'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과소지역을 500m 격자 단위로 분석한 결과, 5인 이하가 거주하는 인구 과소지역이 전 국토의 14.3%로 2020년(14.1%)에 비해 0.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3년 전 28.5%에서 31.1%로 2.6%p 상승하며 30%대를 돌파했다. 반면, 광주

는 18.5%에서 18.3%로 0.2%p 낮아졌다.

전남은 2018년 28.49%, 2019년 30.32%, 2020년 30.33%, 2021년 31.08%로 지속적으로 비율이 상승하고 있다.

3년 연속 인구가 감소한 지역 역시 전남은 2019년 18.65%, 2020년 19.78%, 2021년 19.80%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전남 22개 시·군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고흥군으로 42.23%를 기록했다. 고흥군은 전국 시·군·구 중 3번째로 고령인구 비율이 높았다. 보성군은 39.91%(전국 5위), 함평군은 37.95%(전국 15위)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전남은 고속·고속화철도 접근성(가장 가까운 고속·고속화철도 도로 이동거리) 역시 17개 시·도 중 12위에

머물렀다. 전남지역 고속·고속화철도 접근성은 35.38km에 달했다.

이와 달리 대도시권인 서울 6.83km, 대전 9.58km, 광주 12.17km, 부산 15.91km, 세종 16.86km, 대구 17.54km, 울산 21.90km 등으로 상위권에 자리했다.

전남보다 고속·고속화철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은 강원(43.89km)·충남(43.7km)·충북(37.08km)·인천(37.01km) 등 4개 지역이었다.

전남은 응급의료시설 접근성도 전국에서 13번째로 낮았다. 실제 응급의료시설로부터 차량 이동 20분 거리(10km) 내에 거주하는 전남 인구 비율은 77.57%였다. 10명 중 2명 이상이 20분 이내에 응급의료시설을 이용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의미다.

보고서는 인구·사회·토지·경제·생활·복지 등 분야별 통계자료를 총 200여 종의 국토지리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문화·체육·보건·교통 등 생활 필수시설의 이용 편의성을 분석한 결과도 담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국토조사보고서는 전남지역 주민의 열악한 삶의 질 상황을 재확인시켜준 통계로 봐야 한다"며 "의료·교통 등 주민 생활을 위한 기본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 플랫폼의 국토통계지도(http://map.ngii.go.kr) 서비스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김재정기자



행정복지센터서 청포도 수확 도시에서 길러온 청포도를 수확해 마을 주민과 나누는 행사가 10일 오전 광주 북구 중흥2동 행정복지센터 앞 마당에서 열려 동직원, 자생단체 회원들이 청포도를 수확하고 있다. 이날 수확한 청포도는 마을 경로당 어르신과 주민들에게 전달됐다. /김애리기자

영·호남 4개 시·군 통합 관광벨트 조성

섬진강권 광양·구례·곡성·하동 참여...공동사업 발굴

광양시와 구례군, 곡성군, 경남 하동군 등 영·호남 4개 지방자치단체가 섬진강권 통합 관광벨트 조성에 나선다.

10일 구례군에 따르면 4개 지자체는 이날 구례군 백두대간생태교육장에서 섬진강권 통합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구례군이 주관한 간담회에는 정인화 광양시장, 이상철 곡성군수, 하승철 하동군수, 김순호 구례군수 등 4개 시·군 시

장·군수와 기획예산과장, 관광진흥과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정책 간담회에서는 섬진강권 통합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 및 향후 추진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간담회 직후에는 4명의 시장·군수가 지자체 추진 의지를 다지는 의미를 담아 섬진강권 통합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섬진강권을 하나의 관광권역으로 발전시키는 것

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속적인 투자와 행정 지원을 다 한다는 내용과 재원 확보 등 대정부 활동에 각 지자체가 공동 참여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0년 8월 기록적인 홍수 피해를 입은 4개 지자체는 지역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섬진강권을 하나의 관광권역으로 묶고 관광에 있어 공동 발전을 이루자는 데 뜻을 모으고 2021년 2월 4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에 따라 실무추진단을 즉시 구성,

지난해 10월 섬진강권 통합관광벨트 조성계획 수립을 완료했으며 발굴된 사업 중 일부가 문제부가 수립하는 남부권 관광개발계획 기본구상에 반영돼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남부권 관광개발 사업과 별개로 섬진강권 통합관광벨트 조성사업을 포함한 5천500억원 규모의 '지리산-섬진강 영·호남 동서내륙 관광벨트 사업'이 윤석열 대통령 지역 핵심 공약에 선정됨에 따라 문제부에 사업반영을 적극 요구할 방침이다.

4개 지자체는 향후 섬진강권 통합 관광시대 개막을 위한 주요 관광지 연계 관광 프로그램 개발, 공동사업 발굴·추진 등 다양한 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구례=이성규기자

예상 뛰어넘는 폭증...이달말까지 지속 전망

117일 만에 1만명대...감염재생산지수도 상승 전환
정점 전후 광주·전남 최대 2만명 확진 가능성

코로나19 재유행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가운데 8월 들어 광주·전남에서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폭증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르면 이달 중순으로 예상했던 정점 시기도 이달 말까지로 재조정하고 하루 최대 확진자 수치 전망도 광주·전남 각각 하루 5-6천명에서 1만명 안팎까지로 확대됐다. 정점 시기를 전후해 광주·전남에서 2만명 안팎의 확진자가 쏟아

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0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광주 5천159명, 전남 5천863명 등 총 1만1천22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 1만명대는 지난 4월14일 1만446명(광주 4천725명, 전남 5천721명) 이후 117일 만이다.

하루 전인 지난 8일보다 광주는 1천698명, 전남은 847명 각각 늘어날 수 있다. 전남 광주지역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자는 5명(누적 589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5명,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확진자도 19명이다. 전남에서는 추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위중증 환자가 22명에 달한다.

10일에도 코로나19 증가세는 꺾이지 않았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광주 4천800명, 전남 4천455명 등 총 9천255명이다. 자정 집계 분까지 더해지면 1만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7월 셋째 주 정점을 찍고 감소세를 이어왔던 감염재생산지수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광주의 감염재생산지수는 7월16일 1.41→7월23일 1.32→7월30일 1.2→8월6일 1.17→8월8일 1.14 등 낮아지다 9일 1.18로 상승했다. 전남 역시 7월 셋째주 1.56→7월 넷째주 1.37→8월 첫째 주 1.24로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지만 10일 기준 1.33으로 상승세로 전환됐다.

확진자 급증으로 감염병 전담병원 가동률도 급증하고 있다. 광주지역 가동률은 51.0%, 전남은 62.6%다. /김재정·박선경기자

Today	
무안공항 무시증 입국제도입?	3면
김경수의 광주명 '최초' 이야기	5면
박계영의 몸에 좋은 제철 음식	14면

2022-2023

전남여행의 모든 정보는 이곳에!

JEONNAM

전남여행의 모든 정보는 이곳에!

남도여행길잡이

검색